

西洋 喪葬禮 儀式 및 服飾에 관한 研究
- 古代에서 近代까지 -

김 경 희 · 이 순 홍*

서일대학 의상과 전임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the Western Funeral Rituals and Costumes

Kyung-Hee Kim and Soon-Hong Lee*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 Textile Design, Seoil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5. 14. 접수 : 2002. 7. 30. 채택)

ABSTRACT

Funeral culture, which came to being along with the death of human beings, has developed through many changes in the background, culture, religion and custome of the times, having variant cultures depending on each nation or era. This study is designed to historically and systematically classify funeral rituals and costumes which have constantly changed in a special funeral culture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so a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each age.

The researcher worked on Western funeral cultures, focusing on Egypt and Rome of ancient times, Greek times, the Middle Ages, recent and modern times ages, referring to literature, precedent stud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ical books, pictures and drawings in relation to death and funeral services.

Western funeral rituals were designed for offering condolence to the dead, but also used to show off the status of the mourners and the position of the dead persons. The mourning dress were utilized to indicate mourning in accordance with the colors, materials and the ways of wearing them, serving as a vehicle for showing off one's own status.

Key words: funeral culture, funeral rituals, funeral clothes, mourning.

I. 서 론

상장례는 인간의 생과 사의 문제를 다루는 의식으로서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의미 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한 것과 영혼에 관한 것, 내세에 관한 것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의식들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인간은 장례의식을 행하는 동물”¹⁾

이라고 표현한 것같이 상장례 의식은 인간의 문화가 시작될 때부터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서나 행하여져 내려온 관행이다.

상장례의식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마지막 의례로서 인간의 사후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생활양식의 일부이며, 죽음이 라는 관념적 사고가 만든 최고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전부터 탄생이나

1) 小畑進, キリスト教慶弔事典 (婚&葬) (東京 : いのちのことは社, 1983), p. 394.

결혼보다 더 널리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죽음을 둘러싼 관습과 의식은 출생이나 결혼에 관련된 것보다 더욱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장례에는 복잡한 문화들이 접합되어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사회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례의 관행들도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서양 상장례문화를 연구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목적은 상장례 변천과정을 시신의 방부처리와 수의, 장례행렬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에 나타난 상장례의식을 파악하고, 고대부터 근대까지 착용하였던 서양 상복의 기원과 특징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서양 상장례에 관한 내용으로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시대와 중세, 근세, 근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문헌조사 방법으로써 상장례의식에 관련된 문헌, 선행연구, 사진 및 그림, 국내의 전문서적을 참고로 하였으며, 인터넷상의 외국박물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연구범위에 있어서 고대는 서양복식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이집트, 그리고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화의 정신적 중심이 되는 그리스, 로마로 제한하였으며, 근대 이후는 현대 상장례관습으로 정략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근대까지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시대나 지역에 편중되어 서양의 상장례문화를 살펴보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I. 상장례의 기원 및 변천

1. 고대

1) 시신의 방부처리

전통상례에서는 관에 시신을 넣기 전 시신에 옷을 입히고 싸는 과정을 염습과정이라고 하며, 사후 즉시 시신을 깨끗이 하고 수의를 입혀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먼저 이집트의 방부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고대 초기 이집트인들은 사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시신을 매장함으로써 사막의 모래 열과 건조로 방부처리 기능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사막의 야생동물들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였는데 관에 넣은 시신이 덥고 건조한 모래를 썬지 않을 경우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서 수세기 동안 시신을 보존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다²⁾.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방부처리 방법은 전통적으로 70일이 걸리는데 시신을 건조시키는데만 40일이 소요되었다. 먼저 시신을 향기 좋은 야자과실주로 씻고 나일강물로 닦은 후 내장을 꺼내어 그것들을 씻은 후 쉽게 건조시켜주는 소다석 안에 싸 놓는다. 시신에서 심장은 꺼내지 않고 방부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심장이 지성과 감성의 중심부분으로 그 사람이 내세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³⁾. 40일이 지나면 시신을 다시 나일강물로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건조된 내장은 린넨 천으로 싸서 몸 속의 원래 위치에 넣고, 시신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톱밥, 나뭇잎, 린넨과 같은 건조한 물질을 넣어 시신이 실제 사람의 모양을 갖도록 하였다⁴⁾. 마지막으로 다시 시신에 향기 좋은 기름을 바르면 방부처리는 끝이 났다. 이집트인의 방부처리는 죽음의 사상, 저승의 이미지로 저승세계에서의 영원한 생(生)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스 시대는 사망 직후 시신을 프로테시스(prothesis) 의식으로 침대 또는 긴 의자에 눕혀놓고 시신에 약품 처리를 하였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 이상의 과정으로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이를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두었다⁵⁾. 그리스 시대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을 중요시 여겼으므로 시신에 대한 방부처리는 비교적 간단하였다. 따라서 사망 하루 후 시신을 따뜻한 물로 닦고 시신에 향료와 올리브기름을 바르면 방부처리는 끝이 났다⁶⁾. 이처럼 그리스 시대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서 시신에

2) Salima Ikran & Aidan Dodson, *Treasures of Ancient Rome*, (London : Tiger Books, 1997), p. 193.

3) Peter Clayton, *The Mummy in Ancient Egypt*, (London : Thames & Hudson, 1998), p. 103.

4) Salima Ikram & Aidan Dodson, *op. cit.*, p. 107.

5) Rush Rehm, *Marriage To Death*, (NJ : Princeton University, 1994), p. 21.

기름과 향수, 향료만을 바르고 특별한 방부처리는 행해지지 않았다.

로마 시대는 숨을 거두면 시신을 침대에서 바닥에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시신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로마의 방부처리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시신의 곁에 향료와 향수를 바르는 표면적인 작업이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방부처리에서 시신을 세척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이처럼 시신을 따뜻한 물로 닦아내는 것은 생명이 끝났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아주 부유한 계층이나 중요인사들의 경우에는 시신의 공개가 길었으므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방부처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로마인들의 방부처리는 부패 없이 시신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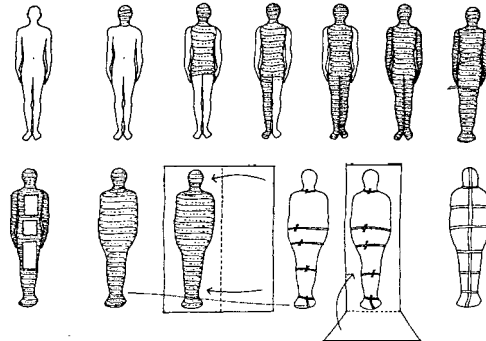
2) 수 의

수의는 고인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통과 의복이며, 시신을 흠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복이다⁷⁾.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는다는 것이 다른 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내세는 육체를 필요로 하는 현세에서의 삶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미이라라고 불리는 과정을 완성하였다.

고대 이집트는 시신에 린넨으로 된 긴 수 백 미터의 붕대와 또 몸에 두르는 커다란 천과 같은 수의로 시신을 감싸 보존하였다⁸⁾. 미이라를 감는 초기 형태는 시신을 염소가죽으로 싸는 것이었으나 인공적인 미이라를 만들게 되면서 가죽대신 린넨이 사용되었다.

〈그림 1〉은 미이라를 감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처음에는 머리를 감고 팔, 다리, 몸 전체를 감는다. 발목부터 몸 전체를 감기 전에 린넨으로 만든 패드를 다리에 놓는다. 몸 전체를 나선형으로 감고 몸 둘



〈그림 1〉 이집트의 수의
(The Mummy In Ancient Egypt, p.163)

레를 수의로 싸서 긴 붕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묶고 다시 또 다른 수의로 감싸 직각으로 끈을 몇 가닥 묶는 것으로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수의로 시신을 싸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일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스 시대에는 이집트와 달리 시신에 옷을 입혀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수의는 사자용이라고 구분되어지는 의복이 아니라 평상시에 착용하였던 흰색의 키톤을 수의로 입혀 매장하였다⁹⁾.

로마는 대부분 직계가족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며, 사망 후에 시신을 따뜻한 물로 씻고 향료를 바른 뒤 최고의 걸옷을 수의로 입혔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고인이 살아있었을 때 입었던 튜닉을 속에 입히고 곁에 흰색 토가(toga)를 수의로 입혔다. 또 황제나 행정관들은 보라색 테두리로 된 토가 프라엑테스타(toga praetexta)와 토가 풀라(toga pulla)를 수의로 입혀 매장하였으며, 고인이 생전에 용감한 행위로 받은 화환을 머리에 얹어 장식하기도 하였다¹⁰⁾. 이처럼 그리스나 로마는 사후의 육체 보존이 아니었으므로 평상시 착용하였던 토가나 키톤을 입혀 매장하였다.

3) 장례행렬

6)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bers, *The History of American Funeral Directing*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Inc. 1985), p. 19.

7) Jacques Chiffolleau, *La Comptabilité de l'au-delà; Les Hommes, la Mort et la Religion dans la région d'Arignon la Fin de Moyen Age*, (Rome : Ecole Française de Rome, 1980), p. 121.

8)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bers, *op. cit.*, p. 8.

9) *Ibid.*, p. 62.

10) Kenneth V. Iserson, *Black The Affairs*, (Texas : Texas University, 1989), p.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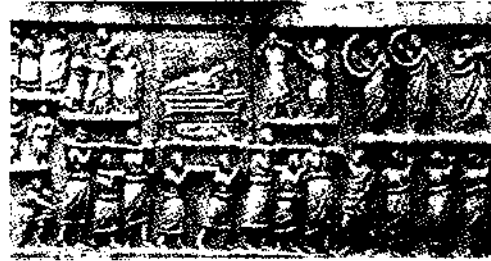
장례행렬은 장례의 기본의식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일련의 이별을 구성하는 행렬이다.

이집트의 장례행렬은 미이라로 만든 시신을 관에 옮겨 놓으면 소나 남자들이 끄는 대형 썰매에 옮겨진다. 장례행렬의 선두에는 포도주, 맥주, 향유, 꽃, 빵 등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섰으며 다음으로 고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했던 부장품들을 운반하는 사람이 뒤를 따르고 무용하는 여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미이라의 시신을 태운 마차가 그 뒤를 따르고, 곡을 하는 하인들과 비탄을 표현하는 전문 조객, 종교 관련 인사들, 그리고 친척들이 그 뒤를 따르는 순서로 장례행렬이 이어졌다¹¹⁾.

그리스 시대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시신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관을 메고 갈 때도 있지만 시신의 운반은 대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이나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들이 운반하였다¹²⁾. 또 도시 밖으로 옮겨질 경우는 노새나 말이 이끄는 마차로 시신을 옮기기도 하였다. 장례행렬시 선두에는 애도가를 부르는 남자들이나 피리를 부르는 여자들이 섰으며 시신을 태운 운구마차가 뒤따르고, 가족이나 친척이 관 뒤를 따랐다¹³⁾. 그리스 시대는 장례행렬 때 장송가를 부르는 직업적인 사람이 등장하였다.

로마 시대의 상류계층들은 장례행렬을 통해서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례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줄로 겹쳐서 행렬을 이루고 있다. 상여는 보통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나 친구 또는 노예 신분에서 새롭게 해방된 사람이 이 역할을 하였다. 이 장례행렬에서는 8명의 상여꾼이 시신의 관대를 메고 있으며, 앞에는 4명의 피리 부는 사람, 트럼펫 부는 사람, 호른을 부는 사람이 선두에 섰다. 악사와 상여 사이에는 두 명의 머리를 풀어헤친 애도가가 뒤따르고, 상여의 뒤를 미망인과 두 딸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따르고 있으며 친척과 하인들이 그 뒤를 이었다¹⁴⁾.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는 장례행렬시 가족 이외에



<그림 2> 로마의 귀족장례행렬(Dead And Burial In The Roman, p.29)

직업적인 애도가를 등장시켜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표현하였다.

2. 중세

1) 시신의 방부처리

중세 초기 시신의 방부처리는 보기 드문 일이었지만, 중세 후기로 갈수록 시신에 방부처리하는 것은 더욱 빈번해졌다.

상류층은 먼저 시신의 내장을 제거한 후 패인 부분(腔, cavity)을 물과 알코올로 닦아 내고 장미 향수와 같이 좋은 냄새가 나는 향료를 발라 주었다. 그리고 면과 같은 흡수체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그 안을 채웠는데, 이것은 시신의 건조를 도와주고 좋은 향기를 나게 하였으며, 또한 시신에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타르(tar) 또는 뱃밥(oakum)¹⁵⁾으로 채워 주었다¹⁶⁾. 마지막으로 면을 이용하여 입과 시신의 콧구멍, 귓구멍을 막고 얼굴은 소금을 넣은 장미 향수로 닦아 내고 마지막으로 왁스처리를 한 린넨으로 전신을 덮었다. 이처럼 왕이나 귀족 부자 등의 상류층에서는 수의를 입히기 전에 상당한 경비를 들여 시신에 정교한 방부처리를 하였다.

2) 수 의

11)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bers, *op. cit.*, p. 9.

12) 尾塚 理恵子, “喪の服飾史②”, *衣生活研究*, Vol. 12 No. 6, (1985), p. 60.

13) Rush Rehm, *op. cit.*, p. 22.

14) J. M. C. Toynbee, *Death And Burial in The Rome World*, (Lond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 46.

15) 뱃밥(oakum) : 오래된 대마 엮음에서 나온 느슨한 섬유.

16)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ers, *op. cit.*, p. 87.



〈그림 3〉 나선형으로 감은 형태의 수의 (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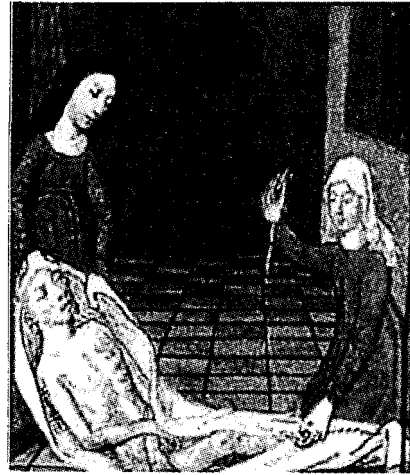
중세에서의 수의는 부활의 복장이며, 사자의 알몸을 가리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영혼이 산 자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봉합의 기능을 하였다.

5세기에서 8세기 동안 시신에 입혀지는 수의는 셔츠형의 내의를 입고 그 위에 겹옷을 입혔다.

11세기 수의의 대부분은 〈그림 3〉에서처럼 시신을 나선형으로 감은 누에고치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12세기에는 시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팔, 다리를 분리하여 감싼 후 다시 긴 노끈으로 십자형으로 꽂꽂 감아 묶어 시신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의형태,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감싼 뒤에 긴 노끈으로 묶는 형태도 있었다

12세기 이후부터 관이 사용되자 노끈으로 묶는 관습이 점차 사라져서 와인딩시트(winding sheet)만으로 몸을 싸서 매장하였다. 15세기에는 시트를 꿰매 있는 수의형태도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수의만 입힌 채 매장되기도 하였다(그림 4)¹⁷⁾.

왕이나 귀족들은 방부처리한 시신을 초나 타르



〈그림 4〉 시트를 꼬맨 수의 (Medieval Death, p.131)

(tar) 또는 고무를 먹인 마포, 즉 씨어클로스(cerecloth)¹⁸⁾로 싸으며, 이렇게 준비된 시신은 관이 없던 시기에는 소가죽이나 얇은 철판으로 싸서 매장하였는데, 11세기 이후 약 1세기동안 소가죽으로 시신을 싸는 관습이 지속되어 왕의 시신들은 도금한 소가죽으로 싸여 매장되었다¹⁹⁾.

12세기부터 왕은 대관식때 입었던 대례복을 입고 소가죽으로 시신을 싸서 매장하였다²⁰⁾. 왕족 특히 대관식을 치른 왕의 경우에는 시신에게 입혀지는 옷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으며 14세기초까지는 시신에 대관식 때의 대례복을 직접 입혀 그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따라서 왕족의 시신에는 셔츠, 튜닉과 망토 등을 입혔을 뿐 아니라 장갑, 금관, 가락지, 홀, 혁대, 칼 및 금직 천으로 된 샌들과 반장화(buskin), 심지어는 박차장식까지 하여 대관식 때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생하여 매장하였다.

중세의 수의는 대부분 시신을 천으로 싸는 관습이 보편적이었는데 이것은 시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보다 단정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7) Philippe Aries, *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Age à Nos Jours*, (Paris : Editions de seuil, 1975), p. 238.

18) 씨어클로스(cerecloth) : 밀납을 입힌 마직물의 일종.

19)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ers, *op. cit.*, p. 72.

20)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Costumes for Births, Marriages & Deaths*, (New York : Haper & Row Inc. 1972), p. 170.



〈그림 5〉 관을 말이나 노새의 등에 싣고 가는 장례행렬(*Image de L'homme Devant La Mort*, p.241)

3) 장례행렬

시신을 옮기는 일은 중세 초기이래 매우 간소하게 행해졌지만 그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성인들의 성유물(聖遺物)을 이송할 때 그것이 어떻게 운반하였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중세의 사람들은 시신을 어깨로 짊어지던가 혹은 거리가 먼 경우 말이나 노새의 등에 실어 운반하였다(그림 5). 중세 초기의 장례행렬은 십자가를 든 한 명의 성직자가 시신을 선도하고 그 뒤에 고인을 애도하는 사람이 뒤따랐다.

12세기에 이르러 장례에 관이 사용될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유럽에서는 기사도에 근거를 둔 문장사용의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²¹⁾. 이때부터 장례는 개인의 죽음이라기 보다는 한 가문의 상사(喪事)로서의 국면이 더욱 부각되고 따라서 장례는 보다 형식을 중시하게 되었다. 즉, 문장의 출현과 더불어 장례의식의 모든 절차를 그 가문의 문장을 관리하던 문장관(heralds)이 진두지휘하게 되었으며, 가족과 친지만으로 이루어졌던 장례행렬은 보다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요소를 더해가면서 길고 화려해졌다.

또 14세기부터 장례행렬시 가족 이외에, 동일 직종의 조합원들, 마차 운반인들, 췌발 운반인들, 성직자들은 부유한 계층들의 장례행렬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부유한 계층들의 장례행렬에는 운구마차 뒤를 탁발 수도승들과 빈민들이 조객들로 참석하여 뒤따랐는데 유언자들이 빈민들을 조객으로 삼은 것은 그들에게 참여의 댓가를 지불하여 자선행위를 하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빈민”의 상징적 개입을 추구하려는 데 있었다²²⁾. 그러나 이러한 장례행렬은 위계 서열화된 사회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로서 14세기 후기부터 귀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증가하였다.

3. 근 세

1) 시신의 방부처리

중세시대와 같은 방부처리는 15세기뿐만 아니라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사용되었던 관습중의 하나였지만²³⁾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시신의 방부처리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유한 상류층이나 왕실에서만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된 관습이었다. 시신의 방부처리는 16세기까지 장의의 필수 불가결한 절차 중의 하나였으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신에 칼을 대는 행위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하여 17세기에 이르면서 점차 사라져갔다.

2) 수 의

16세기 수의는 와인당시트로 시신의 머리 위와 발끝 아래 양쪽을 붙들어 매어 마치 사탕 껍질을 싸듯이 묶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²⁴⁾ 이 관습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수의의 형태이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초월하여 죽은 이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고자 하는 바램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기원하게 되어 시신의 발을 일부러 묶지 않거나 와인당시트를 손발부분에서 묶어주지 않고 느슨하게 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기도 하였다(그림 6). 이처럼 수의란 부활의 기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신에게 경외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혀졌다. 또 16세기부터는 나체의 시신을

21) Mi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New York : Crown Publishers, Inc. 1978), pp. 124~129.

22) 자크 르 고프(저), 유희수(역), *서양중세문명*,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0), p. 49.

23) Charles A. Bradford, *Heart Burial*,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93), p. 56~58.

24) Philli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 157.



〈그림 6〉 손발을 묶지 않은 수의(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125)

와인당시트만으로 싸는 경우와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일상복을 입히는 경우 그리고 와인당시트를 겹치는 셔츠만을 입히는 경우 등 다양한 수의 형식이 있었다.

14세기부터 시작된 장례용 형상²⁵⁾은 16세기에 더욱 발달하게 되어 왕비의 경우도 장례용 형상을 사용한 시신은 대부분 나체에 여러 겹으로 된 린넨 씨어클로스를 감고 그 위를 철판으로만 싸주고 매장하였다. 그리고 형상에는 대관식 때의 대례복을 입혀 장례행렬시 관 위에 올려 장례식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장례식이 끝나면 형상에 입혔던 옷들은 왕실의 의상실로 되돌려져서 왕의 후계자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시신과 함께 값진 대례복들이 매장되어 버리던 이전의 장례식에 비하면 형상에 전시하는 이 방식이 상당히 경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에는 장례용 형상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전의 형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대신 수의를 간략히 입히는 관습이 계속되어 17세기에도 간단한 내의만을 입혀 매장하였다.

이러한 장례식 형상에 입혀졌던 복식은 실제 초창기의 무덤 속에서 시신이 입고 있던 수의들을 잘

25) 시신이 상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제 시신 대신에 고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고인의 지위를 상징하는 문장이나 복식으로 장식되어 고인의 명예와 지위와 힘을 과시하였다.

26) *Ibid.*, p.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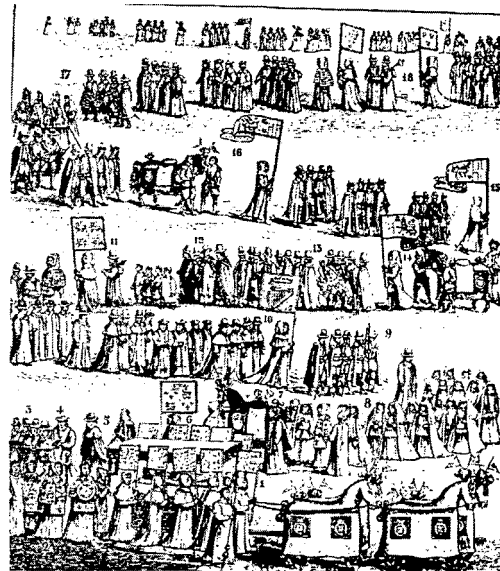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3) 장례행렬

16세기 남자의 장례행렬은 고인의 지위에 따라 구성이 다양하였지만 일반인들의 장례행렬은 맨 앞에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두 명의 지휘자가 검정색 지팡이를 들고 선두에 섰으며, 자선의 일환으로 빈민이 그 뒤를 따르고 고인의 친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다음은 성직자가 뒤를 따르고 상중문표(喪中紋票)를 들고 있는 문장관, 관, 조객장, 다른 주요 조객들 순으로 따르고 마지막으로 여인들과 조객들이 뒤를 따랐다²⁶⁾.

귀족들의 장례식에는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자기 자신의 하인을 동반하여 참석하였고 고인의 밑에서 일을 하던 수많은 수행원들도 모두 장례식에 참석하였기에 때문에 규모가 대단히 컸다.

〈그림 7〉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장례행렬로 많은 사회적 계층의 참가자들이 포함되었고 여왕의 장례행렬에는 가난한 여자들 뿐만 아니라 높은 관리부



〈그림 7〉 엘리자베스 1세의 장례행렬(The History of American Funeral Directing, p.77)

터 부업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 그리고 귀족과 교회와 대표들, 시민 고관들, 정부 관리들, 대사 등을 포함하여 모두 1,600명이 포함되었다.

장례행렬은 조객숫자에 의해 죽은 사람의 신분이 표시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조객들의 숫자는 고인과의 친분관계보다도 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었다. 공작과 후작은 11명의 주요 조객을 백작은 9명, 남작은 7명, 기사 이하의 계급에서는 3명의 조객이 있었다²⁷⁾.

18세기는 16, 17세기보다 좀더 간소해지기는 하였지만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장례식을 웅장하게 치렀으며, 슬픔을 상징하는 여러 개의 커다란 타조 깃털을 큰 쟁반에 이고 가는 피더맨(feather-man)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한 인물도 등장하게 되었다²⁸⁾.

장례행렬의 거대한 규모는 바로 화합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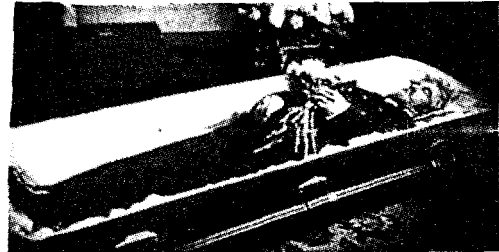
4. 근 대

1) 시신의 방부처리

19세기에도 시신을 매장하기 전 하루 이상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시신에 화학약품처리를 하거나 냉동처리를 하여 보존하였다. 이때 방부처리는 대부분 장의사들이 하였다.

먼저 시신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서 씻긴 후 시신의 구멍을 막고 시신 전체에 용액을 바르고, 남자의 경우는 면도를 시키고 눈을 가리개로 덮고 입을 다물게 하는데 필요시에는 입술을 가볍게 꿰매기도 하였다²⁹⁾. 그리고 옷을 입히고 시신 밑에 깨끗한 시트를 깔 다음 머리 밑에 조그만 베개를 놓고 시신을 시트로 덮은 후 수다리움(sudarium)이라는 손수건 크기의 천으로 얼굴 위를 덮으면 시신의 방부처리 과정은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시신이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 의



〈그림 8〉 양복과 구두를 착용한 수의(Sleeping Beauty, p.58)



〈그림 9〉 흰색 잠옷의 수의(Sleeping Beauty, p.21)

19세기 수의는 이전에 입혀져 왔던 수의보다는 고인의 평상복 중 가장 좋은 옷을 선택하여 수의로 입히거나 평상복의 형태로 수의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³⁰⁾.

1868년 남자들의 수의는 평상복의 양복을 입혔으며, 모자와 구두까지 착용시켜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림 8). 여자의 경우에는 평상복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흰색의 잠옷을 입히기도 하였으며(그림 9), 또 갓 결혼한 신부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웨딩드레스로 수의를 입히기도 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새틴 주름장식이 가득 달린 흰색의 모직으로 만든 수의를 입혔는데 앞면에 주로 장식을 한 잠옷과 비슷하였다.

왕의 수의는 19세기에도 시신의 나체를 씨어클로스로 싸서 입관하였다. 따라서 왕이나 귀족의 수의는 장례용 형상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19세기

27) J. Woodward, *The Theatre Of Death* (London : Boydell Press, 1997), p. 18.

28) Philli Cunningham & Catherine Lucas, *op. cit.*, p. 196.

29)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bers, *op. cit.*, p. 263.

30) Phillis Cunningham & Catherine Lucas, *op. cit.*, p.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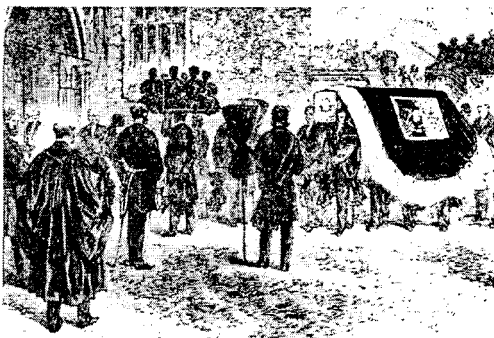
까지 대부분 방부처리와 싸어클로스, 또는 간단한 내의만을 입혀 매장하였다.

3) 장례행렬

장례행렬은 장의사가 나타난 이후부터 19세기말까지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이전의 장례행렬과 같았다. 그러나 장례행렬의 선두에 섰던 지휘자 대신 장의사가 행렬의 선두에 섰으며, 상중문표와 문장깃발의 전시행렬도 사라졌다. 또한 빈민을 따르게 하였던 관습도 점차 없어지고 대신 타조 깃털을 이고 걸어가는 피더맨이 관 앞에 서게 되었다(그림 10)³¹⁾. 이 깃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깃털의 숫자는 고인의 신분을 나타내어 깃털이 없는 것은 고인이 가난했음을, 세 개나 네 개의 깃털은 부유한 사람을, 다섯 개나 여섯 개의 깃털 이상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²⁾.

일반인들의 장례행렬은 왕실의 장례행렬보다 의복이나 음악, 애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훨씬 간단하였지만 많은 친구와 이웃이 참석하였으며 사람들은 장례를 위해 기부금을 냈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묘지까지 길고 거대한 장례행렬이 이어졌다³³⁾.

장례행렬에서 마차의 숫자와 장의 마차의 화려함



<그림 10> 피더맨의 모습(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197)

과 규모는 고인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회성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장례 행렬은 많은 부분이 고인이 살아 생전에 쌓았던 친분과 사회적 연결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묘지를 향해 행렬하는 영구마차는 아름답음과 장엄함으로 행렬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장엄한 광경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이 죽음으로 귀착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게 해주었다.

Ⅲ. 서양상복

상복은 “weed”라 하여 수녀복과 비슷한 길고 검정색 외투를 말하는 것으로, “weed”라는 단어는 “미망인의 상장(widow's weed)” 또는 “미망인(doole)”의 두 가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상복의 착용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이 일반인들과 공식적으로 구분되었다³⁴⁾. 또 상복은 내적인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며, 고인에 대한 마지막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착용하였다.

미망인의 상복은 기독교 초기의 첫 수녀원의 설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의 많은 수녀원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둔 생활을 하던 부유한 미망인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따라서 상류계층의 미망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미망인의 집(dower-house)”에 들어가 수녀와 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였고, 배우자의 안식을 빌며 엄격한 은둔생활을 하였다. 미망인들은 많은 점에서 수녀들과 유사한 생활을 하였는데, 수녀는 순결과 겸손, 순수함을 상징하는 검정색, 갈색, 회색, 흰색의 옷을 입었고, 미망인들도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정색, 회색, 흰색의 옷을 착용하였다³⁵⁾. 수녀들은 험렁하고 주름진 옷으로 얼굴과 몸을 감쌌으며 미망인들도 베일과 험렁한 의복을 착용하여 성욕을 감추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래된 낡은 의복을 입었다. 또한 미망인이 사용하였던 본넷(bonnet)도 수녀복에

31) *Ibid.*, p. 197.

32)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ers, *op. cit.*, p. 269.

33) *Ibid.* p.269.

34) Lou Taylor, *Mourning Dress - A Costume and Social History* -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4), p. 65.

35)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 153.

서 유래된 것이었으며, 상중임을 나타내던 미망인의 흰색 커프스도 수도원에서 유래되었다³⁶⁾. 이처럼 수녀와 미망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수수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거의 없었던 수녀복에 비하여 미망인의 의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행을 따르게 되면서 변화를 가져왔다.

1. 고 대

1) 이집트

고대 이집트는 왕이나 왕족이 사망하게 되면 죽음을 곧바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두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특히 왕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70일 동안 상복을 입게 하였다³⁷⁾. 이집트인들은 가까운 사람의 상을 당하면 모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 진흙을 칠하고 머리 위에 가루를 뿌리면서 가슴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모습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정이라기보다 사자의 영혼을 저승에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비탄의 정을 과장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여자상복은 커다란 천을 가슴 바로 밑부분까지 감싸 가슴을 드러내어 착용하였는데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이러한 형태로 착용한 것 같다(그림 11). 남자들도 같은 모습으로 로인클로스를 입고 가슴을 치며 슬픔을 나타내었다.



〈그림 11〉 이집트 여자상복(The Ancient Egyptian Book of the Dead, p.38)

2) 그리스

그리스 시대의 상복은 고인과 비슷한 옷을 착용하여 고인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애도하는 사람들의 결속관계를 재확인하였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애우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집단을 정의하였다³⁸⁾. 상을 당하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과 산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성직자가 제물을 바칠 때 동물의 털을 자르거나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다른 세계로 기꺼이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³⁹⁾. 상복으로는 평상시에 착용하였던 얇은 마직물이나 면직물로 만든 검정색이나 회색의 이오닉 키튼을 착용하거나 도오릭 키튼의 초기 형태인 페플로스를 상복으로 착용하였다.

맨몸이나 키튼 위에 입는 히메이션은 입는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달랐는데 상복으로 착용할 때는 검정색이나 보라색, 회색, 짙은 녹색의 히메이션을 머리를 감싸 착용하였다.

3) 로마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고인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으며 직업적으로 곡을 하는 전문 조객을 장례식 과정에 도입하였다. 고용된 여성 전문 조객들도 비명을 지르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였으며, 의식이 가까워짐에 따라 슬픔을 가장한 흥분이 더해지고, 3번의 의식적 고별사인 콘클라마티오 모리티스(conclamatio mortis)⁴⁰⁾ 즉 머리를 휘어뜯고 옷을 찢고 얼굴을 피가 나도록 핏물이며 고인을 부르는 순서로 절정에 달하였다⁴¹⁾. 이러한 관습은 감정의 분노를 실제 육체적 고통으로 바꾸면서 분노를 감소시키는 방법이었다. 로마 시대의 여자들은 일반 복식인 스톨라를 착용하고, 그 위에 히메이션에서 유래한 팔라를 머리 위에서 베일 형태로 착용하였다.

상류층들은 상복으로 검정색이나 갈색, 회색의 모

36) Bertran S. Puckle, *op. cit.*, pp. 91~94, cited by,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bers, *op. cit.* p. 78.

37) 尾塚 理恵子, *op. cit.*, p. 59.

38) R. Rehm, *op. cit.*, p. 22.

39) *Ibid.*, pp. 23~24.

40) 콘클라마티오 모리티스(conclamatio mortis) : 콘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

41) Robert W. Habenstein & William M. Lambers, *op. cit.*, p. 28.

직물로 만든 토가를 착용하여 머리 위에까지 둘러서 입었다.

2. 중 세

1) 중세 초 · 중기

중세 초기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요소와 게르만적인 요소를 혼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복식이 발전하였다. 중세의 상복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유사한 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14세기 이전까지 특별한 스타일은 나타나지 않았다⁴²⁾. 부유한 미망인들과 조객들이 입었던 상복은 수수한 검정색의 평상복에서 유래되었다⁴³⁾.

11세기의 상복은 일반 복식과 같은 의복을 착용하여 달마티카나 튜닉을 입고 남자들은 아래에 호즈를 입고 그 위에 직사각형이나 반원형의 형태인 검정색 맨틀을 상복으로 착용하였다(그림 12). 13세기에도 무릎길이의 튜닉을 입고, 위에는 검정색 맨틀을 입고 있다. 이처럼 중세 초 · 중기에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복식과 같은 스타일을 상복으로 착용하였다.

2) 중세 후기



<그림 12> 11세기 튜닉 위에 맨틀을 착용한 상복 (Medieval Death, p.34)

(1) 여자 상복

장례의식에 착용하는 상복은 장례식이 확립되고 세분화되었던 15세기에 비로소 착용하기 시작하였다⁴⁴⁾.

14세기초 여성들은 상복으로 흰색의 꼬뜨를 착용하고, 머리를 감싸고 턱을 감싸는 바브(barbe)와 커버치프(coverchief)라고 불리는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워플(wimple)를 착용하고 맨틀이나 후드를 착용하였다(그림 13)⁴⁵⁾.

바브는 14세기 후부터 앞부분에 주름을 잡아 턱을 가리는데 착용하였는데 계급에 따라 달리 착용하여 상류층 부인들은 턱 위로 올라오는 바브를 착용하고 평범한 베일이나 커버치프를 어깨까지 늘어뜨렸다. 15세기에도 주름진 바브와 어깨까지 내려오는 커버치프를 사용하였고, 검정색 로브와 외투(surcoat)를 상복으로 착용하였다. <그림 14>의 공작부인은 주름진 바브를 자신의 지위에 맞게 사용하여 턱 아래부분을 덮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후에 미망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되었다⁴⁶⁾.

15세기 중반 상복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후



<그림 13> 14세기 흰꼬뜨를 착용한 상복(The Book of Costume, p.77)

42) Lou Taylor, *op. cit.*, p. 70.

43) Phyllis Tortora &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s, 1997), p. 124.

44) *Ibid.*, p.125

45) Herbert Norris, *Tudor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 Dove Publications Inc. 1997), p. 58.



〈그림 14〉 15세기 주름진 바브를 착용한 상복
(*Mourning Dress*, p.74)

드의 착용으로 특히 계급을 구분하는데 유용하였으며, 후드의 형태 또한 중요하였다. 후드의 티켓은 길이와 디자인이 다양하여 지위에 따라 길이를 다르게 하였다.

(2) 남자 상복

남자는 상복으로 폭넓은 후드와 검정색 까운을 입었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감싸는 것이었다.

남자상복도 여자상복과 마찬가지로 티켓의 길이는 지위에 따라 달랐으며 1422년 프랑스의 찰스(Charles) 6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장은 참석자들 중 가장 긴 티켓을 착용하였다⁴⁷⁾.

〈그림 15〉의 조객장은 긴 티켓의 후드가 달린 검정색 까운을 입고 있으며, 소년의 티켓도 후드에서 발뽀뽀까지 길게 내려온 까운을 착용하고 있다.

중세 후기 남자상복의 기본 형태는 길게 흐르는 듯한 티켓후드가 달린 검정색 까운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림으로서 조객들의 슬픔을 나타내었다.



〈그림 15〉 15세기 티켓 후드가 달린 까운(*Mourning Dress*, p.74)

1) 16세기

(1) 여자 상복

여자상복은 16세기 중반까지 중세와 마찬가지로 머리에는 바브와 커버치프를 쓰고 검정색 뱀틀을 상복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중세 스타일의 상복이 점차 사라지면서 화려한 스타일의 상복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복에도 일반 복식에 착용하였던 휠 파팅게일(wheel farthingale)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아한 러플을 달고 화려한 패딩을 하였다.



〈그림 16〉 파리스 헤드와 바브를 착용한 메리스튜어트(*Tudor Costume And Fashion*, p.514)

3. 근 세

46) Lou Taylor, *op. cit.*, p. 75.

47) T. S. K. Boase, *Death in the Middle Ages*, (London : Thames & Hudson, 1972), p. 99.

<그림 16>은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여왕의 초상화로 흰색의 파리스 헤드(paris head)를 쓰고 투명한 흰색 바브를 착용하고,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모습은 프랑스 왕실의 젊은 비망인 상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⁴⁸⁾.

<그림 17>은 장례식에서 조객장의 상복으로 백작 부인은 긴 트레인이 달린 맨틀을 착용하고 있으며 트레인은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받쳐들 정도로 길이가 길었다. 머리에는 오픈 장례후드를 쓰고 그 밑에 작은 러프를 착용하였는데 바브는 러프와 함께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브가 주름진 가슴받이(beb-like) 모양으로 변화되었다. 그 뒤에 6명의 주요 조객들은 트레인이 달리지 않은 맨틀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흰색 테두리가 있는 오픈 장례후드를 쓰고 있다.

(2) 남자 상복



<그림 17> 긴 트레인이 달린 맨틀을 착용한 조객장의 상복(The Theatre of Death, p.115)



<그림 18> 트레인이 달린 까운을 착용한 조객장의 상복(Costume for Births, Marriages & Deaths, p.360)



<그림 19> 후드를 어깨에 걸친 일반조객들의 상복 (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 185)

16세기 남자 상복은 장례식에서 조객장이나 의식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즉 주요 상주들, 장례식 호위자들인 큰 기를 가진 사람들, 문장관, 마차에 앉은 안내자와 주요 조객들, 상여꾼들은 소매가 달린 길이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상복용 까운을 착용하고 티켓이 달린 후드를 올려썼고, 조객장은 트레인이 달린 까운을 입어 그 중요성을 나타내었다(그림 18).

일반 조객들도 검정색 까운을 상복으로 입었으나 후드는 주요 조객과 달리 착용방법이 변하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후드 대신 왼쪽 어깨에 후드를 걸쳐 착용하였다(그림 19). 그러나 다음 세기 이후부터는 뒷부분의 후드가 사라지게 되고, 장례용 새쉬(sashes)가 발전하여 19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⁴⁹⁾.

따라서 16세기 남자 상복에 있어서 후드는 여러 가지 착용방법으로 역할과 차별화를 쉽게 하여 계급을 표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

2) 1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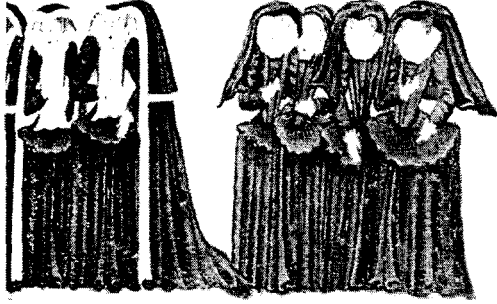
(1) 여자 상복

17세기 초에는 16세기와 같이 트레인이 달린 상복용 맨틀을 착용하였으나 바브는 작은 러프와 화려한 스토마커로 바뀌었다⁵⁰⁾.

48) Herbert Norris, *op. cit.*, p. 752.

49)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 185.

50) Lou Taylou, *op. cit.*, p. 93.



〈그림 20〉 1603년 엘리자베스여왕 장례식의 여자조객들의 상복(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365)

〈그림 20〉은 1603년 엘리자베스 1세의 장례식으로 주요 조객은 휠 파딩게일 스타일의 검정색 로브를 입고 커다란 아치형 후드를 착용하고 트레인이 달린 맨틀을 상복으로 입고 있다. 맨틀에는 흰색 단이 되어 있으며 스토마커는 흰 판넬로 덮여 있는 모습이다. 일반 조객들도 휠 파딩게일 스타일의 검정색 로브와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베일을 쓰고 있다⁵¹⁾. 머리에는 장례후드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커다란 아치 모양의 철사를 두른 검정색 머리장식은 머리와 렉프를 자유롭게 하였다.

17세기 중 후반에 이르러 상복용 맨틀의 사용이 사라지게 되면서 상류층의 부인들은 장례식에 검정색 까운을 입고 검정색 베일을 착용하였다. 남편이 사망한 부인은 정식상기간의 장례식 상복으로 트레인이 달려있는 까운을 입었으며, 머리에는 눈썹까지 내려오는 후드를 쓰고, 얼굴의 나머지 부분은 코에서 땅까지 내려오는 판넬로 가리고 있다(그림 21)⁵²⁾. 또 일반 여자 가족들의 얼굴도 판넬로 가렸으며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머리 위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정도의 짧은 베일을 달거나, 혹은 모자만 쓰는 상복을 착용하였다.

(2) 남자 상복

17세기초 남자상복은 16세기말과 같은 스타일의 상복을 착용하였으며, 17세기 중반에는 주스트코르



〈그림 21〉 17세기 중, 후반 부인 장례식상복 (Mourning Dress, p.97)

(justau-corps)를 착용하고 그 안에 긴 베스트를 입었으며 곁에 장례용 까운을 착용하였다. 남자 상복도 점점 더 화려해졌으며, 티벳후드를 쓰는 남성들의 장례용 까운은 17세기 말 이후 사라졌다. 1670년 일반 남자들의 상복으로 발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긴 까운을 입고 후드가 아닌 모자를 썼으며, 크라운이 높은 모자에는 상장 베일(falls)을 사용하는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길이가 긴 검정색이나 흰색의 천을 크라운 둘레에 감아서 끝을 등뒤로 늘어뜨리는 형태였다(그림 22). 이러한 상장은 19세기까지 사용되었다.

17세기 후기부터 장례식은 상의기간에 따라 정식상기간(full mourning, first mourning)과 약식상기간(second mourning)으로 나누어졌는데 정식상기간은 처음 상기간으로 가장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게 되어 장신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었으며 윤이 나는 소재의 사용도 금지되었고, 어두운 검정색 벨벳과 크레이프만이 허용되었다⁵³⁾.

약식상기간에 착용하는 상복은 정식상복과 평상복으로 되돌아오는 중간기간에 입는 상복으로 다소 완화된 의상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검정색 뿐 아니라 어두운 자주색과 회색도 허용이 되었으며, 잔잔

51)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 226.

52) *Ibid.*, p. 96.

53) Lou Taylor, *op. cit.*, p. 102.



〈그림 22〉 17세기중반 모자에 상장을 두른 상복
(*Ce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173)



〈그림 23〉 18세기초 프랑스왕실 상복
(*Mourning Dress*, p.113)

한 패턴과 실크 소재도 사용 가능하였다.

3) 18세기

(1) 여자 상복

18세기 정식상기간에 착용하는 상복은 검정색의 어둡고 수수한 모습으로서 검정색 크레이프 트림된 봄바진드레스(bombazin dress)⁵⁴⁾ 후드를 착용하고, 검정색 새미(shammy) 가죽신을 신고 장갑과 크레이프 부채를 들었으며, 그 외의 다른 장신구는 허용되지 않았다. 약식 상기간의 상복은 술을 달거나 흰색 린넨으로 트림된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흰색 장갑, 흰색이나 검정색 신발, 부채, 흰 복걸이나 귀걸이 등을 장식할 수 있었다⁵⁵⁾.

〈그림 23〉은 18세기초 프랑스 왕실의 상복으로 안에 흰색드레스를 입고 겉에 검정색 까운을 착용하였는데 커프스와 긴 트레인에 폭넓은 모피가 장식되어 있으며, 머리에는 흰색 갓과 후드를 쓰고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 흰색 베일을 착용하였다. 손에는 커다란 흰색 손수건을 들고 있는 미망인의 전형적인



〈그림 24〉 18세기 중산층의 상복
(*Mourning Dress*, p.114)

모습이다.

귀족들의 상복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게 되었다. 18세기 일반 잡지와 신문에는 궁정의 상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⁵⁶⁾ 일반사람들의 상복과 예법은 왕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많은

54) Natalie Rothstein, *A Lady of Fashion -Barbara Johnson's Album of Styles and Fabrics-* (New York : Thames and Hudson, 1987), p. 19.

55)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 256.

56) Lou Taylou, *op. cit.*, p. 111.

연관이 되어 있었다.

〈그림 24〉는 18세기 중반 정식상기간의 중산층 상복으로 검정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흰색 캡의 베일이 가슴까지 늘어져 있고 캡 위에 베일이 달린 검정색 후드를 착용하고 있다. 왼 손에는 반지 2개를 끼고 있는데 하나는 결혼 반지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식 반지를 착용하여⁵⁷⁾ 엄숙한 상의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18세기 여자상복은 일상복과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면서 화려한 상복의 유행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스타일은 거의 비슷했으며 색상과 소재, 장신구에 차이가 있었다.

(2) 남자 상복

18세기 남자 상복은 평상복과 같은 스타일로 특별한 규정없이 코트, 조끼, 바지를 착용하였다. 정식상기간의 상복은 실크나 벨벳, 금 은사로 수놓아진 코트와 조끼를 검정색 모직 코트로 대신하였으며, 소매나 주머니에는 유행하는 화려한 단추를 달지 못하였다. 또 프릴이나 레이스, 커프스 대신 수수한 모슬린이나 례 넥크클로스(neck-cloth)가 흰색 상장을 대신하였다. 약식상기간에는 검정색 실크 코트와 스타킹을 착용하였으나 회색코트를 더 선호하였고, 또 술 장식이 달린 린넨이 허용되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조객장은 이전에 착용하였던 트레인이 달린 검정색 외투(cloak)를 입었으며, 검정색 모자의 크라운에는 흰색 또는 검정색 상장을 묶었다.

또 새로운 장례용 세쉬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어두운 색상의 실크 소재로 왼쪽 어깨에 사전으로 걸쳐 입는 형태로 남성의 장례식에서 검정색이 사용되고, 여성과 아이들의 장례식에서는 흰색이 사용되었다⁵⁸⁾.

18세기는 팔에 두르는 장례용 완장(armband)이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군대의 상복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19세기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4. 근 대

1) 19세기

(1) 여자 상복

19세기가 되면서 상복은 더욱 화려해져 사회계층을 따라 확산되었으며, 중산층 사이에 퍼지던 것이 사회의 극빈자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림 25〉는 19세기초 검정색 상복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의 선을 살린 하이 웨이스트(high waist), 노빅크, 반소매의 퍼프 슬리브(puff sleeve)로 당시 패션의 특징이 반영된 엠파이어 스타일 상복의 모습이다. 옆에 있는 어린이도 같은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검정색의 리본을 장식한 흰색의 캡을 쓰고 있다.

19세기 중산층은 계급적인 의식 속에서 왕실의 상복 예법을 따랐는데 이것은 가족 장례식의 성대한 관습이 옛 왕실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또 1861년 빅토리아(Victoria)여왕은 알버트(Albert)공이 사망하자 40여년 간 상복만을 입고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많은 중산층에게 영향을 주어 사람들은 상을 지내게 될 때마다 여왕의 의상을 똑같이 모방하여



〈그림 25〉 19세기초 엠파이어스타일의 상복 (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376)

57) *Ibid.*, p. 113.

58) *Ibid.*, p. 101.



〈그림 26〉 1870~1880년대 약식상복
(*Mourning Dress*, p.144)

상복을 착용하였다⁵⁹⁾.

19세기에는 상복만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 아니라 상복에 대한 예법 또한 증가하게 되어 상기간은 점점 더 길어졌다. 이러한 상기간의 예법은 점점 더 복잡해져 남편이 사망하면 2년 반, 부모가 사망하면 18개월, 자식은 12개월, 형제 자매는 6개월, 사촌이 사망하면 3개월에서 6주 정도 상을 지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기간은 가족들이 결정을 하였다. 또 친척의 상을 지내는 동안 다른 친척이 사망하였



〈그림 27〉 1890년 정식과 약식상복
(*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251)

을 때도 다시 그만쯤의 상을 지내는 일이 빈번하여 오랜 기간동안 상을 지내게 되었다⁶⁰⁾.

정식상기간의 상복은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수수하고 검정색 크레이프를 많이 사용한 드레스를 입고, 케이프(cape)와 다양한 스타일의 외투 등을 착용하였다. 1870년~1880년대는 약식상기간의 상복으로 칼라와 커프스, 상체에 검정색 크레이프를 트리밍한 검정색 드레스를 착용하였다(그림 26).

이처럼 정식상기간과 약식상기간에는 차이를 두고 상복을 착용하는데 약식상복은 정식상복보다 크레이프가 적게 들어간 옷을 착용하였으며, 드레스, 케이프, 본넷도 좀더 우아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27〉의 왼쪽 그림은 19세기말 정식상기간의 상복으로 긴 베일과 크레이프로 된 검정색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약식상기간의 상복으로 크레이프로 트리밍된 캐시미어로 만든 상복을 입고 있다. 〈그림 28〉은 흰색으로 트리밍된 검정색 드레스를 상복으로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장례용 피크장식을 하고 매우 긴 베일을 드리우고 상장 커프스를 하고 있다. 이처럼 19세기에는 “위퍼(weepers)”라는 단어가 미망인의 베일과 길고 두꺼운 흰색의



〈그림 28〉 1888년 상장 커프스와 베일을 하고 있는 정식상복(*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267)

59) <http://www.vivtorianaonline.com/library/etiquette/white>.

60) *Ibid.*, p. 134.

커프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⁶¹⁾ 이러한 상장용 커프스와 베일은 18, 19세기 미망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다.

(2) 남자 상복

19세기 초기 남자들의 상복은 소매나 주머니에 단추가 없는 검정색 옷을 입고, 수수한 모슬린 또는 린으로 된 크라바트와 흰색 커프스의 상장, 그리고 새미 신발과 장갑, 크레이프 모자 상장과 검정색 검, 버클을 착용하였다.

약식상기간 남성들의 상복은 흰색과 금색의 의복이 가능하였고, 검정색 코트와 무늬 있는 조끼를 입었다⁶²⁾.

1860년대에는 장의사들만 상복용 외투를 입었고, 조재장은 왼쪽 어깨에 검정색이나 흰색의 새쉬를 매었으며, 모자에 크레이프 상장을 둘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19세기말에 사라지게 되어 18세기에 나타난 검정색 완장을 착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일반적으로 1890년대 남자상복은 평범한 검정색 정장에 타이틀 매고(그림 29) 크레이프 완장을 착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완장의 폭은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랐는데 3~4인치가 일반적이었고 왼팔 위쪽에 두르는 것이었으며 남성들만 사용하



〈그림 29〉 1898년 타이틀 맨 검정색 상복(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366)

61) D. Yarwood, *op. cit.*, p. 292.

62) Armystage & F. Fitzhardinge, *Old Court Customs and Modern Court Rule* (London : Richard Bentley, 1883), cited by L. Taylou, *op. cit.*, p. 128.

였다.

IV. 결 론

장례문화는 인간의 죽음과 더불어 탄생한 문화로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 종교, 관습이나 습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으며, 각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양의 고대에서 근대까지 변화되어온 상장례의식과 복식을 역사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상장례의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이집트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통하여 내세의 육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시신에 방부처리를 하여 시신을 리넨으로 된 긴 수백 미터의 붕대와 커다란 천과 같은 수의로 감싸 미이라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시신을 보존하였다.

그리스시대는 죽음 뒤의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을 중요시 여겨 시신을 따뜻한 물로 닦고 향료와 올리브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방부처리를 한 후 시신은 평상시 착용하였던 흰색의 키튼을 수의로 입혀 매장하였다.

로마시대의 시신처리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향료와 향수를 바르는 표면적인 작업이었으며, 고인이 살아있었을 때 착용하였던 튜닉을 속에 입히고 겉에 흰색 토가를 수의로 입혔다.

중세는 기독교사상과 많은 관련이 있는 시대로 초기에는 기름과 향료를 바르는 방부처리를 하였으나 왕이나 귀족들은 시신이 상가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신의 내장과 심장을 들어내는 방부처리를 하였다.

중세의 수의는 시신을 천으로 싸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왕은 방부처리한 시신을 씨어클로스(cereloth)로 싸서 매장하다가 12세기부터 대례복을 수의로 입혀 매장하였다. 그러나 14세기부터는 장례용 형상을 만들어 대관식 복식을 형상에 입히는 것으로 변하여 의식에 사용되는 의복을 입고 묻히던 수의에 관한 관습이 변하였다.

16세기 시신처리에는 중세시대와 같이 시신의 심장을 분리하여 방부처리하는 관습으로 17세기, 18세기 까지 사용되었지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으므로 부유한 상류층이나 왕실에서만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된 관습이었다.

16세기부터 18세기의 수의형태는 와인딩시트로 나뉘는 시신을 사탕 껍질을 싸듯이 묶어주는 것이었으며, 왕은 대례복 속에 입을 내의만을 수의로 입혀 매장하였다.

근대는 시신을 매장하기 전 하루 이상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장의사에 의해 화학약품처리를 하거나 냉동처리를 하여 방부처리 하였으며, 수의는 고인의 평상복 중 가장 좋은 옷을 선택하여 남자들은 양복

을 입고 구두까지 착용시켜 매장하였으며, 여자는 평상복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흰색의 잠옷을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양 상장례의식에 있어서 시신의 방부처리나 수의, 장례행렬은 고인을 애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고인들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나타나 상장례의 여러 가지 절차와 의식은 고인이나 가족들에게 중요시 여겨져 왔다.

상복의 변천은 <표 1>과 같다.

고대 상복의 특징은 특별한 스타일의 상복을 착용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여 색상이나 착용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상중

<표 1> 서양상복의 변천

시대	특징	여 자	남 자
고 대	이집트	가슴을 드러나게 착용한 로인클로스	로인클로스
	그리스	이오닉키톤, 페플로스, 히메이션	보라색, 회색, 짙은 녹색 히메이션
	로마	스톨라, 팔라	검정색, 갈색, 회색 토가
중 세	초·중기	달마티카, 튜닉, 검정색 맨틀(11세기) 무릎길이 코트, 후드 달린 검정색 맨틀(13세기)	달마티카, 튜닉, 검정색 맨틀, 호즈
	후기	흰색 코트, 워플, 후드 달린 검정색 맨틀, 바브(14세기) 후드 달린 맨틀, 검정색 로브, 슈르코, 주름진 바브(15세기)	긴 티켓의 후드, 검정색 카운
근 세	16세기	로브, 맨틀, 바브, 커버치프, 티켓후드(초중반) 로브, 맨틀, 파리스 헤드, 티켓후드(후반)	더블릿, 호즈, 검정색 카운, 타켓후드, 클락
	17세기	검정색 로브, 트레인이 달린 맨틀, 아치형 후드, 새도우베일(초 중반) 트레인이 달린 검정색 카운, 베일, 후드(후반)	트레인이 달린 검정색 카운, 티켓후드, 외두(cloak)(초기) 쥬스트코트, 베스트, 카운, 상강베일(중후반)
	18세기	정식상복 : 검정색 크레이프로 트리밍된 드레스, 후드, 베일 약식상복 : 흰색 린넨으로 트리밍된 검정색 드레스, 후드, 베일	정식상복 : 검정색 외투, 검정색 코트, 베스트, 파지, 검정색 양모스타킹, 론 네크클로스, 모자상장, 새쉬 스카프 약식상복 : 검정색 실크코트나 회색 코트, 스타킹
근 대	19세기	정식상복 : 크레이프로 넓게 트리밍된 검정색 드레스, 베일 약식상복 : 회색 드레스, 검정색술(초반) 칼라, 커프스, 보디스에 크레이프를 트리밍한 검정색 드레스(후반)	장례용 외투, 모자상장, 새쉬, 검정색 코트, 크라바트(초,중반) 검정색 정장, 타이, 완장(후반)

임을 나타내었다.

중세의 상복은 초기 기독교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유사한 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14세기 이전까지는 특별한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16세기 후반부터 중세스타일의 상복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반복식에 착용하였던 윌과팅 게일이나 러플, 페딩을 된 스타일을 착용하였다. 남자상복은 후드의 착용으로 장례행렬에서 역할과 차별화를 쉽게 하였다.

17, 18세기 여자상복은 정식상기간과 약식상기간에 차이를 두고 상복을 착용하는데 정식상기간에는 어둡고 수수한 검정색 크레이프를 트리밍된 드레스를 착용하고 약식 상기간에는 좀더 장식적인 술이나 흰색 린넨으로 트리밍 된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흰색 장갑이나 목걸이, 귀걸이 등을 장식할 수 있었다. 남자상복은 특별한 규정없이 정식상복은 화려한 단추를 달지 않은 검정색 모직 코트를 착용하였으며, 약식상기간에는 검정색 실크 코트나 회색코트, 스타킹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상을 나타내는 새로운 장례용 새쉬스카프(sashscarf)가 등장하였다.

19세기 정식상기간의 상복과 약식상복도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크레이프의 많고 적음으로 구별하여 착용하였으며, 19세기말부터는 검정 정장에 타이를 매고 크레이프 완장을 착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복의 착용은 고인을 위해 나타내는 마지막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으며, 고인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고인과의 친족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타일의 구별보다는 색상, 소재 그리고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중임을 표현하였으며, 현대에 착용되어지는 상복 또한 근대에 나타난 상복들과 유사하게 입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자크 르 고프(저), 유희수(역) (2000). *서양중세문명*, 서울 : 문학과지성사.
小畑進 (1983). *キリスト教慶吊事典(婚&葬)*, 東京 : い

のちのことは社

尾塚 理恵子 (1985). “喪の服飾史②”, *衣生活研究*, 12(6).
Charles A Bradford (1993). *Heart Burial*, London : George Allen & Unwin.

Norris Herbert Tudor (1997).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 Publications, Inc.

<http://www.victorianaonline.com/library/etiquette/white>.

Toynbee, J. M. C. (1996). *Death And Burial in The Rome World*, Lond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Woodward, J. (1997). *The Theatre of Death* London : Boydell Press.

Chiffolleau Jacques (1980). *La Comptabilité de l'au-delà: Les Hommes, la Mort et la Religion dans la region d'Arignon à la Fin de Moyen Age*, Rome : Ecole Francaise de Rome.

Iserson Kenneth V. (1989). *Black The Affairs*, Texas : Texas University.

Taylor Lou (1984). *Mourning Dress - A Costume and Social History* -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Davenport Milia. (1978). *The Book of Costume*, New York : Crown Publishers, Inc.

Rothstein Natalie. (1987). *A Lady of Fashion - Barbara Johnson's Album of Styles and Fabrics* - New York : Thames and Hudson.

Clayton Peter (1998). *The Mummy in Ancient Egypt*, London : Thames & Hudsn.

Aries Philippe (1975). *Essas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Age à Nos Jours*, Paris : Editions de seuil.

Cunnington, Phillis & Lucas, Catherine. (1972). *Costumes for Births, Marriages & Deaths*, New York : Haper & Row Inc.

Tortora, Phyllis & Eubank, Keith. (1997).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s.

Habenstein, Robert W. & Lambers, William M. (1985). *The History of American Funeral Directing*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Inc.

Rehm, Rush. (1994). *Marriage To Death*, NJ : Princeton University.

Ikran, Salima & Dodson, Aidan. (1997). *Treasures of Ancient Rome*, London : Tiger Books.

Boase, T. S. K. (1972). *Death in the Middle Ages*, London : Thames & Hudson.